

시인(詩人) 김상용론(金尙鎔論)

월파(月坡)는 그의 시집 《망향》 첫 장에 「내 생의 가장 진실한 느껴움을 여기 담는다」하였다. 이 한 마디로 그는 적절히도 스스로 자기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그는 생에 대하여 가장 진실하게 느끼는 시인이요, 생에 대한 그 「진실한 느껴움」을 읊은 것이 곧 그의 시다.

시란 결국 「생에 대한 느껴움이 아니냐」 하리라. 그렇다. 그러나 시인 김상용의 느껴움은 「진실한 느껴움」이요, 또 그를 딴 시인과 구별하는 것도 이 「진실한 느껴움」이다. 그러므로 「진실한」이란 이 형용사의 의미만 이해하면 「시인 김상용」이 그 독특한 면모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란 결국 「생에 대한 느껴움」이나, 시인으로 하여금 각기 그 독특한 표정을 가지게 하는 것은 그 「느껴움」의 종류와 강약이다. 어떤 시인은 웃음을 통하여 늘 생을 5월 햇살처럼 화려하게 느끼나, 어떤 시인은 눈물을 눈에 담은 채 늘 생을 회색 장막처럼 음울하게 느낀다. 또 같이 생을 화려하게 느낌에 있어서도 어떤 시인은 낭만히 생을 구가하나, 어떤 시인은 조용조용히 생의 기쁨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다같이 생을 우울하게 느낌에 있어서도 어떤 시인은 통곡하나, 어떤 시인은 슬픔을 휘파람으로 불어 날린다. 또 어떤 시인은 생의 부조화에 의분하여 폭풍을 부르고, 어떤 시인은 생의 추악에 절망하며 쓰

디쓴 고소를 한다.

시인 김상용의 눈에 비친 생은 외로운 것이요, 슬픈 것이요, 서글픈 것이요, 안타까운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오직 회의의 잔을 기울이며

야원 지축을 서러워

하기도 하고,

고독을 밤새도록 간질

하기도 하고,

달빛은

처녀의 규방으로 들거라

내 뉘은

암흑과 짝진 지도 오래거나—

이렇게 광명을 등져도 본다. 그러나 그의 시는 전체가 밤과 같은 우울이나, 호수와 같은 고독이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비애에 덮여 있지 않다. 그리하여 이곳에 진실로 그의 시의 독특한 표정이 따라 「진실한 느껴움」이란 그 「진실한」의 의미가 숨어 있다.

「진실」이란 말이 감정을 수식할 때에는, 자기부정과 비과장과 무수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의 가장 진실한 느껴움」만을 적으려

는 시인 김상용은 모든 느껴움에 오로지 자기를 내어 맡긴다. 자기의 마음을 비워놓고 그 속에 생의 온갖 느껴움을 조금도 흘림없이 받아들 이려고 한다. 그리하여 생의 느껴움을 과장하거나 수식하지 않으며, 그 리함으로 통곡하거나 고향치거나 하지 않는다. 이에 그의 마음은 생의 느껴움에 대하여 언제나 공정하다. 공정하므로 그의 생의 느껴움은 결 코 침통하고 격렬하지 않으며, 그의 시는 심각하거나 열렬하지 않다.

그런데 과장과 수식을 버리고 자기를 거부한 대상에의 귀의는 또한 대상에의 이해를, 그리하여 사랑을 낳는 것이다. 이에 생의 느껴움에 귀의하여 그것을 고루고루 느끼려는 이 시인은 언제까지나 생을 서러 워하고, 외로워하고, 고달파하지만 않는다.

사랑은 완전을 기원하는 맘으로
결함을 연민하는 향기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이 시인은 결함 많은 생을 연민하고 어루만져, 드 디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용히 관조할 수 있는 XX경지에 다 다른다.

왜 사나건
웃지요.

이는 생을 관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 태도다. 이와 같은 인생 태도가 빚어내는 이상은 아마도 창을 남쪽으로 낸 집일 것이 요, 그 집을 둘러싼 밭일 것이요, 그 밭에 무르녹은 강냉이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노래한다.

남(南)으로 창(窓)을 내겠소

밭이 한참갈이

팽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노래는 공으로 들으려오

강냉이가 익결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이와 같이 시인 김상용은 생을, 그리고 생에서 오는 느껴움을 관조한다. 그런데 관조란 또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한 전체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관조작용은 일종의 직관적·상상적 작용이다. 이에 생의 관조의 시인 김상용은 「팽이」나 「한잔 물」과 같은 물체나 물질까지도 그 스스로 한 전체를 이룬 존재로서 파악한다.

넙적 무투룩한 쇠조각 너 팽이야

괴로우므로 너 희열로

꽃밭을 갈고

물러와 너는 담 뒤에 숨었다.

이제 영화의 시절이 이르러

봉오리마다 태양이 빛나는 아침

한 마디의 네 찬사 없어도,

의로운 행복에

너는 호올로 눈물겨운다. —〈괭이〉

목 마름 채우려던 한잔 물을
땅 위에 엮질렀다.
너른 바다 수많은 파두(波頭)를 버리고
하필 내 잔에 담겼던 물.

어느 절벽 밑 깨어진 구비던지
어느 산모루 어렸던 구름의 조각인지

어느 나무 잎 위에
또 어느 꽃송이 위에
내려졌던 구슬인지

이름 모를 꿀을 내리고
작고 큰 돌 사이를 지난 나머지
내 그릇을 거쳐
물은 제갈길을 갔거니와……

허전한 마음
그릇의 비임만을 남긴
아! 애닦은 추억아! —〈한잔 물〉

이 시인의 관조에 비친 이 두 세계를 보라. 그 두 세계는 그 자신으로
서 존재하는 한 전체로서 완전하지 않으나, 그리고 거울 속에 들어가

비친 어떤 영상처럼 이 시인의 보드라운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안기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이 시인은 거울 이편에 확실히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

물 깃는 처녀 돌아간
황혼의 우물가에
쓸쓸히 빈 동이는 놓였다. —〈노래 잃은 뺨꼭새〉

머리를 드니
가을 석양에
하늘은 저렇게 멀다.

높은 가지의
하나 남은 잎새!

풍경을 대할 때 그의 관조는 한층 더 정한하여지고 명량(明瞭)하여진다. 진실로 월파는 관조의 시인인저.

(《문장》, 1권 6호, 1939. 7. 1)